

다해·제2301호

대림 제2주일 · 인권 주일 · 사회 교리 주간

2024년 12월 8일



에스테반 무리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세례자 요한>
1655년경, 캔버스에 오일,
시카고 미술관, 미국

목 차

02 말씀의 향기

누군가의 곁에 머무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03 사제 단상

12년 전 오늘, 12년 후 오늘.

04 특집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³⁶

05 담화 요약

제43회 인권 주일, 제14회 사
회 교리 주간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 주세요.



천주교충천교구
www.cccatholic.or.kr

입당송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
령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제1독서

바룩 5,1-9

화답송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필리 1,4-6.8-1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음

루카 3,1-6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김용주 비오 신부
사회사목국 차장 겸 사회복지회 담당

누군가의 곁에 머무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언젠가 저녁에 길을 걷다, 바닥에서 반짝이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살펴보았더니 휴대폰이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망설이던 순간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달려가 괜찮은지 여쭙보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구급차도 함께 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서 경찰과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분 곁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며 쳐다보는 이들의 눈이 자꾸만 그분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곁에 서 있는 저도 함께 힐끗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차라리 저만 쳐다보고 지나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마침내 구급차가 오고 응급처치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저도 다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계속 그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또 그 곁을 지나가던 사람들의 눈빛도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그저 그렇게 보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은 주님을 만나 뵈는 기회가 됩니다. 이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 안에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난한 이들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얼굴을 만나 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10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언제나 편하고 좋은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길에서 만나는 이들이 행복하고 걱정 없는 이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 만남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그때 주어지는 구원의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 주일을 맞아 여러 이유로 자신의 길을 가다 넘어지고, 힘없이 쓰러져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떠올려 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고귀한 품위와 인간다움마저 누군가에게 빼앗겨 맥없이 하늘만 쳐다보는 이들에게, 그분께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는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대림 시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또 다른 주님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웃들 곁에 함께 머물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편적 친교를 이루어야 하는 사랑의 실재입니다.



12년 전 오늘 12월 8일 첫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때, 그날, 그 시간이 아직까지 뚜렷합니다. 미사 시작 30분 전 ‘주님, 제발 아무도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고해소 사제석에 처음으로 들어가던 떨림.

첫미사에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선배 신부님들의 축하.
 신학교에서 함께 살아온 동생들의 응원.
 “신부님 떨지 마세요” 라며 웃어주시던 수녀님들.
 오랜 시간 영적 물적으로 후원해 주신 본당 신자분들의 미소.
 성당 아래 교육관에서 살며시 올라오는 첫미사 후 나눌 음식들의 냄새.
 신자석 맨 앞자리에서 눈을 꾸욱 감고 기도하시던 부모님의 모습.
 막냇동생 첫미사에 나보다 더 긴장한 친척 형제들.
 얼마나 정성스럽게 다려놓으셨는지 만지기도 미안했던 서품 제의의 감촉.
 입당 행렬 때 제대 뒤 스테인드글라스를 뚫고 내려오던 햇빛.
 성찬례 중 터져버린 울음에 “숨 깊게 쉬고...천천히 하면 돼” 라고 말해주시던
 아버지 신부님 나지막한 목소리.
 눈물 너머로 일렁이며 보이던 미사 경문과 함께 울어주셨던 수많은 신자분들의 얼굴.
 새 사제 첫 안수를 받기 위해 두 손 꼭 모으시고 나오시던 신자분들의 모습.
 신부님이라는 말이 안 붙어 “부제님 아까 미사 때 왜 울었어요?” 라고
 천진하게 묻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때, 그날, 그 시간 내가 듣고 보았던 모든 것들을 통해 분명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던 주님.

누구에게나 여러 종류의 감정으로 잊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러한 날이 하느님의 현존을 강하게 느꼈던 날이 되겠지요. 하느님의 현존이 가장 강하게 느껴졌던 그날은 내 삶에서 ‘가장 감사한 날’이었을 것이며, ‘가장 감사한 날’이 될 것입니다. 사제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12년 전 오늘이 바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12년 후 오늘 저는 그날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가 경험한 ‘가장 감사한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사제로 축성될 이상현 대건안드레아, 박관욱 안토니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수품자들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백성을 섬기며 늘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장 감사한 날’을 준비하는 수품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도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바치기

바티칸뉴스 <바티칸 공의회 개막>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³⁶

교회

글 |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예비자 교리 초반부, 본격적인 신앙 고백의 내용들에 대해 다루기 전에 반드시 다루게 되는 주제 중 하나는 개신교 덕분에 잘못 알려져 있는 용어 문제입니다. ‘기독교’ 부터 시작해 ‘하느님과 하나님’, ‘야훼와 여호와’, 그리고 ‘성당과 교회’ 등입니다. 특히 교회에 대해서는 천주교는 성당을, 개신교는 교회를 다니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 라틴어로 ‘Ecclesia’ 는 ‘불러모임’ 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성격을 지닌 백성의 집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느님 앞에 모인 선택된 백성들의 집회를 가리키는 데 자주 사용되었고, 그리스도교 초기 공동체는 자신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어 **하느님께 선택된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교회’ 라고 불렀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751항).

그리스도교 용어에서 교회는 **전례적 집회**를 가리키나 **지역 신자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온 세계 신자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서 모으시는 백성이며, 미사와 같은 전례적 모임으로 실현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751항).

교회는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것처럼 개신교 예배가 이루어지는 건물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며, 단순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사와 같은 전례적 모임만을 지칭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고 고백합니다. 교회의 의미가 전례적 집회, 지역 또는 온 세계 신자 공동체라는 걸 생각하면 신앙 고백의 내용 중에 교회가 들어 있는 것은 마치 신자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믿는다는 말처럼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신앙 고백 내용들,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대한 고백과 그 뒤에 이어지는 교회에 대한 믿음 사이에 존재하는 분명한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은 그분을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 ‘을’ 믿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어진 하나이고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의미는 **교회 ‘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떠하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이는 성모님께 대한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틴어로는 이를 “Credo(나는 믿습니다) in Deum(하느님을)” 과 “Credo Ecclesiam(교회를)” 으로 목적어 앞에 “in” 을 쓰거나 쓰지 않는 것을 통해 분명히 구별합니다.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다루는 교의 신학을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때 그중 한 부분을 담당할 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스스로를 무엇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무척이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교황으로부터 주교, 사제로 이어지는 하나의 수직적인 제도로 교회를 주로 바라보던 과거에 비해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를 모두 포함하는 ‘하느님 백성’ 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교회를 하나의 수직적 제도가 아닌 **하느님 백성의 모임**으로 바라보도록 그 시각을 바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교회는 엄청난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최근 강조되는 시노달리타스 역시도 교회를 무엇으로 바라보느냐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QR코드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리서 320~322쪽, 748~752항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제43회 인권 주일, 제14회 사회 교리 주간 담화 요약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1코린 12,19)

지난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3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목숨을 잃은 23명 가운데 18명은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수사 당국은 사고의 원인을, 무리한 생산 강행, 무자격 인력 공급 업체의 비숙련 노동자 투입, 급증한 불량률에 대한 무대책, 발열 전지의 선별 작업 중단 등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구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또 파견된 노동자를 투입하고서도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참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힘들고 위험한 일을 파견, 또는 하청 업체 노동자에게 맡기는 그릇된 관행,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라는 비인간적 기업 경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듯 위험한 일이 ‘더욱더 약한 노동자’에게 내려가는 이유는 이윤의 극대화를 최우선시하는 우리 사회의 탐욕 문화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 안에서는 인간의 존엄은 부정되고 가치 기준은 “효율성, 가능성, 유용성”(『생명의 복음』, 23항)으로 대체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배척되고 소외되며, 특히 힘없는 노동자는 “그냥 버리는 소모품”(『복음의 기쁨』, 53항)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죽음과 유가족의 슬픔을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거래로 생각하며, 이 또한 영업 손실로 결산합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는 사용하다가 버려도 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가 필요해서 ‘초대한 손님’ 이자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법과 제도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241항; 『간추린 사회 교리』, 298항 참조). 그들은 단순 노동력이 아니라 ‘인격체’이며, 우리 이웃이자 형제자매입니다(『두캣 [DOCAT]』, 152항 참조). 그들은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1코린, 12,21) 하며 차별하고 배제할 수 없는, 결코 그렇게 하여서도 안 되는 ‘우리과 하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아픈 것처럼, 그들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1코린 12,23-26 참조). 모든 지체가 건강할 때 몸은 건강합니다. 우리 사회의 한 지체인 이주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도 건강하지도 않다는 증거입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가장 약한 지체인 이주 노동자를 더욱 특별히 그리고 소중하게 안아 줄 때 우리 사회도, 우리 자신도 건강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제43회 인권 주일입니다. 세상과 이주 노동자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는 교회와 우리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입니다(사목 현장, 1항 참조). 이번 인권 주일과 사회 교리 주간에는 특별히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러나 외면받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사회적 참사와 구조적 불의에 무관심한 나머지 “이 모든 것이 마치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지 우리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복음의 기쁨』, 54항) 하였던 우리 자신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한 우리의 편견과 혐오 그리고 차별과 우월감을 던져 버리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마태 23,8)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진정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환대, 보호, 증진과 통합의 시간’(『모든 형제들』, 129항 참조)을 가집니다. 다시 한번 아리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며,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고향을 떠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든 이주 노동자에게도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2024년 사제 서품식

12. 10.(화) 14시, 주교좌 죽림동 성당
[서품 전 9일 기도 지향]

8일(12. 8. 주일): 수품자의 성화를 위해
9일(12. 9. 월):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수품자를 위해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사제평의회 · 참사회

12. 17.(화) 14시, 교구청 대회의실

행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월간 행사표는 큐알코드로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춘천교구 대림 특강

1강: 윤장호 시몬 신부
2강: 이지목 안셀모 신부



춘천교구 유튜브 채널 ▲

본 당 알 림

12월 하느님 자비의 기도모임

12. 16.(월) 13~16시, 임당동 성당
기도하고 싶은 누구나 / 강의, 성시간, 고해성사, 미사 / 매월 세번째 월요일

거진 본당 설립 50주년(1976. 8. 15.) 준비
본당 설립 50주년(2026. 8. 15.)을 준비하며 오래된 사진, 책자 등 거진 본당과 관련된 내용의 물품들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바랍니다.(1960~2002년까지의 정보)

☎ 033-682-5484

주교좌 죽림동 성당 상설 고해소

매 (목) 14:00~17:30

영동지구 상설 고해소

매 (금) 14~17시, 임당동 성당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제2학기 명도학당 종강(토크콘서트)

12. 9.(월) 19시, 가톨릭회관(누구나 참석가능)

평협 월례회의 및 송년 미사

12. 14.(토) 10시, 교구청

여정 수강생 만남의 날

12. 14.(토) 10~16시, 가톨릭회관

부활 성당 운영 안내

2025년 1월부터 매주 (월) 휴관합니다.

렉시오 디비나(성독, 거룩한 독서)

12. 10.(화) 10~17시까지, 가톨릭회관

대상: 한 번이라도 렉시오 디비나의 강의를 들으신 분은 모두 초대함

지도: 김택신 신부 / 미사: 16시

참가비: 1만원(점심포함)

☎ 010-9345-5593

이주민센터 시작 미사(영어 미사)

12. 8.(주일) 14시, 이주민센터(학곡리 동내면 학곡서3길 32) 12. 15.부터 15시 영어 미사
이주민을 위한 미사가 새로운 장소에서 봉헌됩니다.

사랑의 기쁨 2기 청년 오리엔테이션

12. 14.(토) 14시, 교구청

12월 카나 혼인 강좌

12. 14.(토) 18:30, 입암 성당

12. 21.(토) 18:30, 일동 성당

대상: 결혼을 앞둔 부부/관혼배를 위한 부부

☎ 033-240-6095 가정생활환경부

성령새신봉사회 말씀과 치유 피정

12. 13.(금) 13:00~18:30, 스무쥔성당

주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마태 1,23)

강사: 정대영 모세 신부(광주교구)/한연흠 다니엘 신부(수원교구) /미사: 17시, 엄기선 베네딕토 신부

☎ 010-2962-4051

체나콜로 모임과 월미사

12. 14.(토) 10~13시, 효자동 성당

미사: 11시, 조영수 마태오 신부

☎ 010-3669-2076

좋은 이웃 상담실 운영 안내

심리, 신앙, 부부, 자녀, 아동 상담 실시
월~금(10~17시) ☎ 033-253-6006

2024년도 귀속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25. 1. 15.부터 조회 가능)

1) 신청기한: 2024. 12. 31.(화)까지 (기한 이후 신청 및 변경 처리 절대 불가)

2) 간소화 서비스 포함 대상: 2024.1.1.~2024.12.31.까지 납부한 기부금

3)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 제출: 2022년 11월 이후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동의자 본인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기 전까지 유지되므로 매년 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2022년 11월 이전 동의서 제출자와 타교구 전입자, 새 영세자 등 동의서 제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본당 사무실에 비치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신자는 본당 사무실에서 서면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납입한 당사자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인바, 타인 명의(직계 존비속 등)로 변경(납부 정정)하여 발급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처음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명의로 납입하도록 합니다.

성소모임 / 성소모임은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서울 자양동 수녀원(건대입구역)

010-7197-1390

한사람은 온세상보다 소중합니다.

속초 나드리 여행사

페낭, 쿠알라, 말라카 / 베트남 다낭, 후에, 짜기우 3박 5일 / 터키 일주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7대교회, 에페소, 이즈밀
☎ 010-5373-8181 어일훈 느헤미야

지 오 건 장

주택, 아파트 리모델링 도배, 장판, 욕실, 주방시공 건축, 목공 국가자격증 소유
☎ 010-8480-1789, 010-4075-2166 이보람 가브리엘

중앙산부인과(속초)

산전진찰, 부인과진료, 골다공증 관리 국가암건강검진(자궁, 유방암) 성인 예방접종, 영양수액
☎ 033-637-9887
김군하 다미아노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 글라라 · 김길영 마르티노

인 준 시 설

죽림동주교좌성당부설 성심유치원 원아 모집
연령: (만5세)2019년생~(만3세) 2021년생까지
홈페이지: www.sungsimkids.co.kr
☎ 010-7116-7443, 033-255-7443

밀알재활원 직원모집

분야: 생활재활교사 3명(남2, 여1)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공정한 채용을 위해
출신학교, 주민번호, 사진, 추천인, 종교 기재금지
접수: 우편, 이메일 irene-moon@naver.com
☎ 033-261-3112 www.milalfriend.or.kr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 한삶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상담지원 및 기타상담 지원
개인, 부부, 가족 갈등 상담 (9~18시)
☎ 033-257-4687 www.cchanlife.com

갈바리의원(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

말기암 환자분들을 위해 무료 간병인 서비스
☎ 033-644-4992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채용

분야: 시간제 청소년 동반자
서류: 12. 19.(목) 18시까지
면접: 12. 23.(월) 14시
상세내용 홈페이지(www.8181388.co.kr)
☎ 033-818-1389

마리아의 집

미혼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 입소가능
(재)착한목자수녀회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미혼모자시설입니다. ☎ 033-264-0194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일 반 알 림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2. 8.~2. 19. 성모발현지(아시아나) 545만원
3. 9.~3. 20. 파티마,스페인,루르드 460만원
3. 11.~3. 21. 동부유럽 4개국 395만원
4. 1.~4. 12. 산티아고 도보순례 499만원
4. 5.~4. 16. 희년 이탈리아 435만원
☎ 02-2281-9070 www.cttour.org 문의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1월 개강, 각 6~8주

-문화유산으로 보는 교회사(중세): 이진현 신부
-고대 그리스의 시간과 그리스도교 신학: 김민철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마: 모세의 삶과 신앙: 주원준 박사
-구약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여러 얼굴들: 김민 신부
-영성과 심리의 통합 세 번째 길: 최지원 수녀
-영화로 만나는 그리스도교 영성: 박혜원 강사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 02-3276-7733 신청 center.jesuits.kr

가톨릭 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안내

2025년 동반자 100만원 할인 이벤트
3. 17. 이탈리아 알프스 프랑스 10일 (550만원)
3. 17.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535만원)
4. 22. 이탈리아(희년 전대사) 11일 (465만원)
5. 19. 멕시코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13일 (1075만원)
☎ 010-5235-3533 www.catholictravel.co.kr

가톨릭춘천신협은 춘천시, 신협사회공

헌재단, 춘천교구, 본당 및 관련단체 등
손길이 필요한 많은 곳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가톨릭춘천신협 본점 033-255-6742
지점 033-262-6742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원서: <https://uus.pauline.or.kr/> 1. 31. 마감
☎ 02-944-0819~23, 010-5584-8945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42일>

25년 3. 30. / 599만원(+2100유로)예정
루르드, 파티마 순례 포함/catravel.co.kr
☎ 070-4086-0207 가톨릭 트래블

예수회후원회 성지순례

1. 14.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 10.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 17. 베트남 라방 성모성지 (5일) 150만원
3. 14.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60만원
3. 28. 터키, 그리스(사도바오로 발자취)(12일) 480만원
5. 6.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12일) 560만원
☎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제주, 전국 167곳, 일본, 베트남, 마카오 성지순례

제주, 전국 167곳-36만원/베트남, 마카오, 북해도,
아키타, 도쿄, 오사카, 나가사키 각 3박 4일-120만
원/과달루페 성모님 10박 12일(페루 마추픽추 포함)
☎ 010-4239-1929 마르코투어

착한목자수녀회“잠시멈춤”청년기도모임

12. 16.(월) 19:30, 한삶의 집 1층(거두리)
대상: 남, 여 청년(미혼)
☎ 010-7197-1390 카톨릭채널 착한목자수녀회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안소근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열두 소예
언서 II: 12. 20.(금)~22.(주일) / 성경완독:
1. 2.(목)~10.(금), 2. 14.(금)~22.(토)
☎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위성 TV 184번 / olleh tv 231번 / B tv 307번 / U tv 274번

타파웨어 춘천 중앙점

무공해 무독성 김치통, 냉장·렌지용기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타파웨어
정수기, 혼수용품
중앙시장 제일백화점 2층
☎ 010-9042-3638 김소정 안젤라

MZ에스테틱

피부관리에 관심있는 분 전화주세요
100%예약제 / 첫 손님 20%할인
춘천시 춘주로 55(3층)
☎ 010-2705-9913
한민지 효주아네스·홍승후 점마

속초 동명항(영금정)

바다축제(코다리조림)
대구목살, 생선 모듬
코다리, 가오리 조림(전문)
위치: 영금정로 20(동명동1-83)
☎ 637-5070, 010-3756-9380
조철성 베드로·이봉자 벨라데타

**#춘천 모든 굴삭기
불도저 렌탈(임대)**

토목, 조경, 보강토, 토사운반, 불도저
경지정리 등, 각종 난공사, 무료 견적
☎ 010-6311-7989
최찬욱 요한·이은경 테오도라

춘천즐거운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모집(장
기요양등급신청 무료 대행)/직장에 계신 시간
동안 안전하게 어르신을 돌봐드립니다.
☎ 010-3375-4977 김수정 레나

구름다리 주유소

후평동 금호 빌리지 옆
춘천 전지역 신속배달(인접지역도
가능) / 난방등유, 경유, 면세유
☎ 010-8945-1462
엄재철 미카엘·지은희 마리아골베

봄내베이킹

플라워 케이크 주문 제작
강습, 민간 자격증
시청길 10번길 9
☎ 010-9285-0792
임정빈 미카엘라·전정구 베드로

평화 장례를 돕는 사람들(춘천)

힘들고 어려운 장례 후불제로 진행
(제휴 장례식장 할인)
묘지관리·이장·별초/무엇이든
물어보세요(전국 어디나 가능)
☎ 010-2678-9789 홍성식 토마스